

# 朝鮮總督府 學務局의 역사교과서 편찬과 ‘國史 / 朝鮮史’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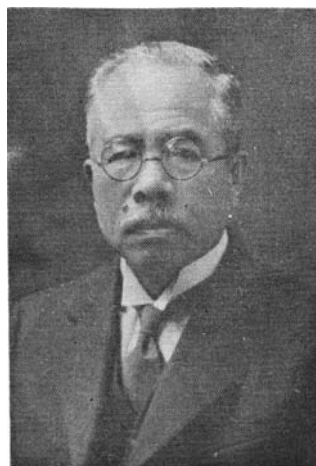
- 小田省吾에서 中村榮孝 그리고 申奭鎬로 -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廣紀)

- |                             |                         |
|-----------------------------|-------------------------|
| I. 머리말을 대신하여 (小田省吾와 ‘朝鮮史學’) | IV. 조선사 교육과 국사(일본사) 교육의 |
| II. 《朝鮮半島史》 편찬 중단과 《朝鮮史》    | 사이                      |
| 간행                          | 맺음말                     |
| III. 경성제국대학·조선총독부 중추원·이왕직   |                         |
| 각각의 ‘사료편찬’                  |                         |

## I. 머리말을 대신하여(小田省吾와 ‘朝鮮史學’)

1910년 8월 한국병합(한일합방)이 되던 시기, 후에 조선사학연구와 식민지 통치하 조선의 문교 시책, 특히 역사교과서 편찬의 기반을 조성하고 정비한 인물이 존재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오다 쇼고(小田省吾)(1871~1953)이다. 뒤에 나오듯이 오다는 조선총독부 교육행정 및 역사편수 관련 사업 전반에 걸쳐 오래 또 깊이 관여하였고 그의 연보 사항을 좇는 것만으로도 거의 일본통치기 조선의 해당사업 전체를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그는 구한국 시기를 포함한 조선에서 그의 활동내용은 매우 다방면에 걸쳐 있다. 초기에는 학무관료(편집과장)로서 주로 교과서 편집에 종사했던 초중



등교육 정책 실행 담당자였다. 또 동시에 중추원 편찬과장을 겸하여 중추원에 의한 ‘朝鮮半島史’ 편찬 실무에도 종사했다. 그리고 1921년부터는 학무국 안에 신설된 고적조사과장도 겸하면서 세키노 다다스(關野貞/건축사)나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국사학), 그리고 도리이 류조(鳥居龍藏/고고학) 등과 함께 낙랑군·고구려 유적 발굴을 비롯한 조선 총독부의 고적조사 사업의 배후 역할을 맡았다. 같은 시기 같은 유형의 인물로서 미쓰치츄조(三土忠造), 시데하라 다이리(幣原坦) 등 구한국의 정부(학부) 초빙의 교육관료, 내지는 총독부의 屬官 클래스 위계로 우선 채용된 오구라 신포이(小倉進平)·다카하시 도루(高橋亨) 등 구한국 말기에서 합방 초기에 걸쳐 계속 근무하거나 혹은 관립학교에서 현장 체험을 가지면서도 연구자로서의 속성을 겸비한 인물들이다. 또 오다는 1924년에 신설된 경성제국대학 교수(예과부장/본과 개학에 따라 법문학부 사학과 조선사학 제2강좌에 배치 변경)로 이동하고 게다가 1932년 3월 정년 퇴직 후에는 경성제국대학 때부터 해오던 각종 지방사(釜山府史·京城府史)를 편찬한데 이어, 李王職 위촉으로 ‘고종·순종 실록’ 편찬까지 다루게 된다. 그 때문인지 오다에 관한 연구의 언급마저 분야마다 상호 연계를 결여한 채 거의 단편화<sup>1)</sup>되며 그의 학술적 업적 전모에 대한 해명조차 장래의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미에(三重)현 도바(鳥羽) 출신인 오다는 神宮皇學館을 중퇴한 후 상경하여 곧 第一高等中學校 예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그 후 학제변경으로 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帝國大學 문과에 진학하였다. 연상이지만 앞서 나온 구로이타 가쓰미보다 대학에서는 3기가 후배였다. 그 스스로도 말하듯이<sup>2)</sup> 쓰보이 구메조(坪井九馬三), 호시노 히사시(星野恒), 미

1) 교육사 분야에서는 예외적으로 오다에 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오다가 병합 직후 ‘조선교육령’(제1차) 發布 시기에 학무국 최고 사무관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佐藤由美, 2000.2 《植民地教育政策の研究》(龍溪書舍, 東京)를 참조하길 바란다. 덧붙여 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오다 쇼고 및 본인 관련 편저작(단행본)은 다음과 같다.

小田省吾·魚允迪, 1924.3 《朝鮮文廟及陸廡儒賢 附朝鮮儒學年表朝鮮儒學淵源譜》(朝鮮史學會, 京城)

小田省吾·瀨野馬熊·杉本正介·大原利武, 1927.8 《朝鮮史大系》 全5卷(朝鮮史學會, 京城)

小田省吾, 1931.10 《朝鮮小史》(魯庵記念財團, 東京)

小田省吾, 1933.5 《朝鮮文化史上より見たる忠南》(忠清南道教育會)

小田省吾, 1934.9 《辛未洪景來亂の研究》(小田先生頌壽記念會, 京城)

小田先生頌壽記念會 編, 1934.11 《小田先生頌壽記念朝鮮論集》(大阪屋號書店, 京城)

小田省吾, 1936.3 《朝鮮陶磁史文獻考 附釜山和館考》(學藝書院, 東京)

小田省吾, 1937.11 《增訂 朝鮮小史》(大阪屋號書店, 京城)

小田省吾 述, 1938.6 《德壽宮史》(李王職, 京城)

2) 小田省吾, 1934.9 <小田省吾略歴自記> 《辛未洪景來亂の研究》(小田先生頌壽記念會, 京城)에

가미 산지(三上參次),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 루드비히 리스(Ludwig Riess) 등 제국대학 문과대학 초기 교수진으로부터 서양사·국사·동양(조선)사 등 당시의 최신 사학연구의 기초를 배운 세대이다. 오다는 1899년 7월 대학 졸업 후 나가노현(長野縣)사범학교·하기(萩)중학교(야마구치현)·도쿠시마현(德島縣)사범학교·우네비(畷傍)중학교(나라현)를 거쳐 1908년 11월에 제일고등학교 교수에 전임함과 동시에 그대로 통감부 설치 하의 한국정부에 용병되는 형태로 학부 편집국 사무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한일합방 후에도 계속해서 조선총독부 사무관으로 변경 배치되어 종전대로 내무부 학무국에서 편집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이후 경성제국대학으로 진출될 때까지 오다는 편집과장으로서 주로 조선인 자제용 초등교육용 학교 교과서<sup>3)</sup>의 편찬 책임자였는데, 이와 더불어 총독부 기관 간행물·잡지에 사학 관련 논문을 정력적으로 공표<sup>4)</sup>하기 시작했다.

다만 오다 개인의 연구 스타일은 아직 ‘史談’, ‘史話’적 영역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가 다룬 테마도 ‘倭館·倭城’ ‘유학·문묘’ ‘李朝의 당쟁’ ‘홍경래의 난’ 등 극히 다방면에 걸쳤다. 한 편마다의 수준은 차치하고 결코 연구상 체계를 일관성을 구비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이 나아가서는 조선사학사 연구에 그의 이름이 편재하는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오다의 활동에서 가장 큰 특징은 역시 학계의 인적 조직화에 있다. 이것은 이전의 구한국시대의 ‘朝鮮古書刊行會’ 및 ‘조선연구회’에서의 경험이나 인적 연계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키오 순쵸(釋尾春菴)(旭邦·東邦)(1875~?)가 주재한 조선고서간행회의 ‘朝鮮群書體系’의 간행(1909~1917년, 전 83책), 기쿠치 겐쵸(菊池謙讓)(1870~1953)·아오야기 쓰나타로(青柳綱太郎)(1877~1932)·호소이 하지메(細井肇)(1886~1934) 등 일본 통치기의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혹은 귀환까지 경험한 언론계 출신의 인사, 그리고 경찰 출신으로 지방관도 역임한 경력을 가진 이마무라 도모(今村鞞)(1870~1943) 등과의 상호 관계가 오다의 업적을 다채롭게 하였다.<sup>5)</sup>

계재

- 3) 이러한 일본통치기의 ‘국사(일본사)’·조선사 교육의 변천과 그 성쇠에 관해서는 森田芳夫, 1987.12 《韓國における國語・國史教育》(原書房, 東京)을 특히 참조하기를 바란다.
- 4) 문교행정계의 정기간행물에서 오다의 문장은 뒤에 실린 【참고 1】과 같다(단 《朝鮮教育會雜誌》제1~15호 : 1911년 10월 ?~1912년 12월은 소장처가 확인되지 않아 필자는 보지 못했다). 또 오다는 조선총독부 발행의 《朝鮮彙報》에도 <文祿の役に於ける加藤清正進軍路の一部調査>(1917년 7월호)를 게재하였다.

특히 학부 관료 시대 말기부터 착수했던 ‘조선사학회’의 조직화는 한국 내에서의 조선사연구가 체계성을 갖추면서 아카데미한 색채를 가지는 과도기에 나타난 것으로서 간과할 수 없다.

당시 조선사편찬위원회 시기를 거쳐 새롭게 조선사편수회가 관제화되고 그 기관지적 학술잡지인 《朝鮮史學》(1~7호, 1926년)도 간행되는 등 어디까지나 관주도의 어용단체적인 색채는 불식할 수는 없지만, 《朝鮮史講座》(1923년), 《朝鮮史大系》(1927년) 등의 강좌물의 간행부터 《삼국사기》·《삼국유사》(모두 1928년), 《신증동국여지승람》(1930년) 등의 기본사료 번각과 반포사업은 史學 연구 형태로서는 새로운 단계로 돌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京城이 주무대가 되는 사학 연구·사학 同好의 운영은 경성제국대학의 교원·졸업생과 조선사편수회계의 연구직 관리를 규합한 靑丘學會(《靑丘學叢》을 1930년부터 발간)를 조직하였다. 또 《청구학총》의 중간(1939년)을 거치며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明治文化硏究會의 계보도 끌어들이 ‘書物同好會’<sup>6)</sup>가 되어 경성제국대학 교원만이 아니라 이마무라 도모 등 재야 인사까지 널리 망라하는 이른바 회고 취미가 발전한 書誌 애호 모임으로 흘러간 것도 또한 하나의 귀결이었다. 또 거의 동시에 한국인 측의 學究로 민족계 학술단체로서 ‘震檀學會’가 1934년 5월에 설립되어 뒤에 나올 崔南善이나 申奭鎬 등은 그 기관지인 《震檀學報》에서 健筆을 휘둘렀다. 이는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대적인 실증주의에 근거한 조선연구를 표방한 모임이며 또 세대적으로 보면 일본식 교육을 받은 인맥 형성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시기에 해당한다. 그들이야말로 1950~60년대 한국사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세대였던 것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점이다.

## II. 《朝鮮半島史》 편찬 중단과 《朝鮮史》 간행

‘독립운동’의 세례와 충격을 거친 1919년 3월 이후의 한국에서는, 1922년 12월 총독

5) 이러한 이른바 ‘朝鮮通’ 일본인 언론인에 의한 한국 연구 동정에 대해서는, 졸고, 2005.6 <日本における近現代日韓關係史硏究> 《日韓歷史共同研究報告書》 제3분과편 하권도 함께 참조하길 바란다.

6) 서물동호회의 경위에 관해서는, 회 운영·기관지 편집 실무를 담당한 櫻井義之의 《明治と朝鮮》(櫻井義之先生還曆記念會, 東京, 1964년 12월), 《靑丘餘錄》(私家版, 流山, 1980년 6월)에 자세히 실려있다.

부 훈령 64호로 ‘조선사편찬위원회규정’이 발포되어, 다음 해인 1923년 1월에 제1회 조선사편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1925년 6월에 칙령 218호로 관제화된 ‘조선사편수회’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덧붙여 조선사편수회에 앞선 조선사편찬위원회는 구로이타 가쓰미의 대학시절 동창이며 또 미야자키(宮崎)縣知事 시대에 ‘사이토바루(西都原)古墳’ 발굴에 종사한 아리요시 츠이치(有吉忠一)(1873~1947)가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의 후임으로서 호고(兵庫)현 지사에서 총독부 정무총감으로 취임하고 또 反政友會 연합으로서 가토(加藤) ‘護憲三派’ 내각 성립에 활약한 시모오카 추지(下岡忠治)(1870~1925)가 그 후임 정무총감에 취임하는 등 두 명의 내무성 관료 출신자가 구로이타의 요청에 의해 구체화시킨 것은 일반적으로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라고 불리는 정당정치의 화려함이든 당시의 한국 내 세태든 정계의 상황을 살필 때 일정한 기준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사편찬위원회 내지는 조선사편수회에 앞선 修史사업의 전제로 구한국시대 이래 ‘구관조사’가 있었던 것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원래 토지 소유관계를 자세히 조사하고 토지제도의 근대적 파악을 기하기 위해 1906년 7월 ‘부동산법조사위원회’가 발족하고 이어서 그것이 다음 해 10월에 ‘法典調査局’으로 관제화되어 다양한 역사자료가 수집되기 시작했다.

법전조사국은 합방 후에는 총독부 개청 후에 조직된 ‘取調局’에 인계되고 그 후 ‘참사관실’ 시기를 거쳐 관제 개정으로 ‘중추원’으로 구관제도에 관한 조사사업이 이관되었다. 특히 궁내부·홍문관·규장각(종친부 서고)·집옥재·시강원 및 강화 정족산·무주 적상산·봉화 태백산·평창 오대산에 있는 이른바 4대 史庫에 수장되어 있던 고기록·고도서들은 1915년 12월에 정리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이를 전후해서 ‘朝鮮半島史’ 편찬 작업이 1915년 7월부터 개시되었다. 또 이 편사 사업의 촉탁으로 미우라 히로유키(三浦周行)·이마니시 류(今西龍)·구로이타 가쓰미 3명이 임명을 받았다. 이 ‘조선반도사’ 편찬의 특징은 그 ‘편성 요지’에 ‘日鮮人이 동족인 사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적혀) 있듯이, 이른바 ‘日鮮同祖’를 전제로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조선반도사’의 편찬은 당초 연한인 1918년 말까지는 사료 수집에 중점을 두고 이어서 고려와 조선최근세사 이외의 부분은 탈고했지만<sup>8)</sup> 결국 완성하

7) 조선총독부, 1916.9 《朝鮮半島史編成ノ要旨及順序 朝鮮人名彙考編纂ノ要旨及順序》 4

8)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1936.6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7. 또 조선총독부 중추원, 1938.2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에도 ‘이렇게 上古 三韓·삼국시대·통일 후의 신라 및 조선시대의 4항에 대해서는 일단 탈고했지만 고려시대, 최근세 두 항목은 탈고에 이르지 않았다’(147쪽)고 한

지 못하고 그대로 조선사편찬위원회로 재편되었다.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는 이처럼 단명으로 끝난 사업에 대해 ‘성급한 총독부 간부의 정치적 의견에서 발의된 것으로 추정된다’<sup>9)</sup>고 하였는데 ‘간부’가 누구를 지칭하는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그 ‘성급’함 중에는 요시노 사쿠조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은 무단적인 합방 초기의 통치책에 더하여 한국 병합을 고대의 복고로 바라본 ‘일선동조론’적 역사인식도 포함된 것 같다.

\*

그런 중에 1918년 1월 중추원 내에 ‘조사과’와 ‘편찬과’가 신설되었다. 조사과장에 중추원 서기관 오다 미키지로(小田幹治郎)(1875~1929)가 임명되었고 편찬과장에는 당시 아직 학무국 편집과장이었던 오다 쇼고가 이를 겸무했다. 그런데 오다 미키지로가 1923년 3월말로 퇴官하고<sup>10)</sup> 이어서 오다 쇼고는 1924년에 개학한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예과부장)로 배치가 변경되었다. 또 조선사편찬위원회를 거쳐 조선사편수회로 조직되면서 중추원 편찬과는 폐지되었다. 또 조사과에는 연구직의 전임고등관은 배치되지 않고 屬官 외에 각 조사사무(조선사편찬, 구관 및 제도조사)에 종사하는 촉탁이 배치되었다. 조선사편수회의 관제시행에 따라 중추원의 修史 관계 인원과 편사업무는 조선사편수회로 이관되었다. 또 조선사편수회의 회장직은 정무총감으로 지정된 자리였고 또 고문은 구로이타 가쓰미와 나이토 코난(内藤湖南) 외에는 명예직으로 조선 귀족이나 중추원 참의에 배분되었다. 그리고 위원에는 중추원 서기관장·이왕직 차관·경학원 부제학 등 의전제통의 관원들이 배치되었다. 그 밖에 실무직으로서 나이토 코난의 수제자로 언론계에서 학계로 옮겨온, 滿鐵의 역사지리조사사업에 종사한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1876~1940) 등, 維

---

다. 또 이것을 뒷받침하듯이 경성대학교 도서관·춘추문고(南冥學館·文泉閣)에는 《조선반도사》 제1편·제2편·제3편·제5편(청구기호 : 古(춘추) B3B조53스)이 소장되어 있다. 제1편과 제5편, 제2편과 제3편이 각각 끈으로 합철되어 있다. 제1편은 ‘조선총독부’, 제5편은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패지에 펜으로 쓴 원고이다. 또 제2편, 제3편은 등사판으로 간간이 붉은 펜으로 교열하고 간자가 붙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2편의 표지에 ‘小田藏書’ 朱印이 찍혀 있기 때문에 小田幹治郎의 옛 소장본으로 추정된다. 또 제3편 속표지 안쪽에 ‘東京韓國研究院圖書印’의 朱印과 등록일이라고 추정되는 ‘1974.11.14’의 刻印이 있다.

9) 森田, 앞의 《韓國における國語·國史教育》 144

10) 小田梢, 1931.3 《小田幹治郎遺稿》 권말에 실린 ‘官歷’, 7쪽에 따른다. 또 오다 미키지로는 和佛法律學校(法政大學 前身)에서 梅謙次郎의 훈도를 받은 법관 출신이다. 나가노(長野)재판소 판사를 거쳐 1907년 1월에 평안북도재판소 법무보좌관으로서 부임했다. 그 후 법전조사국으로 옮겨오고, 이후 취조국에서 참서관실 근무를 거치면서 구관조사·고적조사·조선어사전편찬 등의 과밀한 업무에 중심적인 입장에서 종사했다.

新史料編纂會의 編纂官補에서 조선총독부 학무국 고직조사과 감사관을 거쳐 편집과 編修官을 거친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1892~1960), 노론 출신의 유림·史家인 洪憲(1884~1935) 3명이 修史官에 임관했다. 후지타는 곧 경성제국대학으로 옮기고 그 후임으로 동경제국대학 국사학과를 막 졸업한 구로이타의 문하생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1902~1984)가 임명되었다. 확실히 ‘滿鮮史’와 ‘帝大 國史’의 학통에 재래 朝鮮史家가 더해진 진용은 조선사편수회의 구성에 있어서 큰 특징이다.

이러한 수사관에 약간 명의 修史官補와 서기·촉탁들에 의해 이번에는 《조선사》 편집과 간행이 이루어졌다. 또한 ‘조선반도사’ 편찬 좌절의 교훈 때문인지 이번에는 10개년 연차 계획을 갖고 입안되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940년 3월에 ‘총색인’ 간행으로 완결되었다.

그런데 《조선사》의 편찬 스타일로는 ‘편년체’가 채용되어 제1편(신라 통일 이전 : 전3권)·제2편(신라 통일 시대 : 전1권)·제3편(고려시대 : 전7권)·제4편(조선시대 전기 : 전10권)·제5편(조선시대 중기 : 전10권)·제6편(조선시대 후기 : 전4권)으로 구성되었다. 또 수집사료를 가지고 ‘稿本’을 작성한 후에 거기에서 ‘綱文’ 부분을 뽑아내 사료 원문 그 자체는 게재하지 않는 도쿄제국대학·사료편찬소의 《史料綜覽》 내지는 유신사료편찬회의 《維新史料綱要》 편찬 형식이 채용되었다.

다만 ‘제1편’만은 일본, 한국, 중국의 기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朝鮮史料’·‘日本史料’·‘支那史料’로 3분할한 다음 《大日本史料》처럼 사료원문도 편년으로 수록하는 형식이 채용되었다. 특히 그 편년의 원칙은 각각의 ‘正史’, 즉 《三國史記》·《日本書紀》·《史記》의 한국 관계 사료에서 각각 발췌하여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사료’는 ‘박혁거세’, ‘일본사료’는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鳴尊)’, 그리고 ‘지나사료’는 ‘箕子’부터 기술이 개시되어 ‘고조선’을 둘러싸고는 史傳과 신화가 혼재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 발생한 것이 이른바 ‘檀君’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단군’은 신라의 正史인 《삼국사기》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야사인데다가 13세기에 성립한 《삼국유사》에 문헌기록상 처음 드러나는 전설상의 왕이다.

따라서 정사를 가지고 편년체로 구성한 《조선사》에서도 ‘조선사료’편 첫머리에 단군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 이른바 ‘단군전설’은 이씨 조선왕조기에 그 제사·의례가 확립하고 있어<sup>11)</sup> 그 전승이 역사적 사실로서 관념화되어진 것은 비교적 새로운 시대라

고도 말할 수 있다. 또 문헌비판을 통한 일본의 동양사연구에서는 처음부터 그 실재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지만 일찍부터 동양사학자 나카 미치요(那珂通世)나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도 주목하고 있어 연구상에서의 언급 그 자체가 부정된 것은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언설은 계속 반복되었다. 예를 들면 일찍부터 《삼국유사》 옛 간행본을 입수하고 있던 이마니시 류는

고구려 시대에는 평양의 옛 지명으로 전해졌던 王險이 고려 초기 경부터 王儉仙人으로 되어 仙人王儉으로 바뀌고 평양의 터를 닦은 선인의 실제 이름으로 변한 것에 고려 중반을 지나면서 단군이라는 존칭을 바쳐 檀君王儉이 되어 조선 창시의 神인이 되었던 것이다<sup>12)</sup>

라고 역사지리학적인 수법에 의한 古地名 비정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또 ‘단군에 관한 전설도 구월산 부근에 있고 그것도 매우 새로운 전설인 새로운 국민의 신앙이지만 그 무대를 평양으로 비정한 것은 역시 조선인의 생각에 평양 부근은 오래 전에 개창된 지방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sup>13)</sup>라고 구로이타 가쓰미도 단군 신화·전승적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렇듯 후년에 조선사편수회 고문이나 위원을 맡은 사학자들에게도 ‘단군’이란 좌시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인 동시에 그들의 주된 관심은 고적조사사업의 결과로서 점차 분명해지는 서북지방의 고고학적 식견의 해석 즉 ‘위만조선’이나 ‘한사군/낙랑군’ 쪽으로 향하고 있던 것이다.

원래 이 논쟁은 1923년 1월에 개최된 제1회 조선사편수위원회에서 위원인 鄭萬朝(경학원 부제학)와 李能和(총독부 학무국 편수관)로부터 제기된 것이었다. 또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1938년 간행)에는 이 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발췌하여 채록되어 있다. 제1회 위원회 이래 조선측 위원에 의해 단군 문제가 계속 반복하여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논쟁의 클라이맥스는 제8회(1934년 7월) 위원회에서였다. 崔南善(1928년부터 편수회 촉탁, 위원을 겸임)이 ‘도대체 단군·기자는 역사적 인물인가 신화적 인물인가, 이것은 연구거리이겠지만 적어도 조선인 사이에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 인식되는 것입니

11) 이씨 조선왕조 초기의 단군제사의례의 祀典 편입 문제에 관해서는 桑野榮治씨의 논고(1990.4 <李朝初期の祀典を通して見た檀君祭祀> 《朝鮮學報》 135)·(1990.12 <檀君祭祀儀禮の分析> 《年報朝鮮學》 1)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단군 기년 차이에 착목한 논고로 原田一良, 2002.7 <《本紀》檀君即位年の復元> 《朝鮮學報》 184가 있다.

12) 今西龍, 1910.11 <檀君の說話に就いて> 《歴史地理》 臨時増刊朝鮮號, 229

13) 黒板勝美, 1916.11 <大同江附近の史蹟> 《朝鮮叢報》 (조선총독부월보 개제) 11월호, 6



다. 그런데 본회의 조선사에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우리 조선인으로서 매우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본회의 조선사는 조선인 사이에 그다지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sup>14)</sup>라고 논박하는 장면은 잘 알려져 있다. 민속학자로서 소년 문학의 보급에도 노력한 최남선이 1926년부터 《동아일보》 지상에 연재 발표(1926년 3월 3일~7월 25일)한 <檀君論>(전 77회) 이래 대체로 ‘단군’이 민족주의적 색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다. 또 최남선은 이에 앞서 동아일보 지면에서 오다 쇼고를 지명하여 비판(<檀君否認의 妄> 1926년 2월 11·12일자)하는 등 이른 시기부터 대결 자세를 선명히 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 일본측의 역사가들은 正史를 사용한 편년사료의 편찬이라는 원칙론으로 변박하였다. 《조선사》제1편 제1권 ‘조선사료’에서 고구려 시조에 관한 부분에서는 《삼국유사》의 단군 관계 기사를 채록<sup>15)</sup>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 《조선사》 편찬의 특색은 오히려 고려말·이씨 조선왕조 시대에 걸친 대일관계 기사의 집성적 작업이었다. 특히 조선사편수회가 구로이타 가쓰미의 알선으로 옛 對馬藩主 소우(宗)氏 소유의 이른바 ‘宗家文書’를 조사·구입한 것도 1926년의 일이다. 또 ‘임진왜란’ 시기 재상 柳成龍의 후손 집에서 《懲毖錄》초본이, 또한 李舜臣 자필의 《亂中日記草》, 柳希春 자필의 《眉巖日記草》 등이 지방사료 탐방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희귀한 사료는 1932년부터 차례대로 ‘朝鮮史料叢刊’으로서 번각, 혹은 영인 복각되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작업 실무를 중심으로 담당인 사람은 편수관을 맡은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였다.

\*

그런데 《조선사》 간행은 제6권 제4권 발간(1938년 3월)으로 본편의 간행작업이 완료되었다. 이 마지막 권은 ‘메이지(明治) 27(고종 31)년 6월 27일’까지, 즉 청일 개전 직후의 ‘成歡 전투’까지 그 기술을 끝맺고 있다. 본래라면 특히 ‘正史’를 강하게 의식한 《조선사》야말로 그 마지막 기술은 ‘한국병합’의 날로 삼아야 하겠지만 그것은 결코 행해지지 않았다.

단 각종 일반서 레벨에서는 ‘병합’ 혹은 ‘總督治世’기까지 다루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해당시기를 기술하는 것 자체가 터부였던 것도 아니었다.<sup>16)</sup> 그러나 《조선사》처럼 그

14) 앞의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68

15) 조선사편수회 편, 1932.3 《朝鮮史》 제1편 제1권 (조선총독부), 11~12

16) 《尋常小學日本歴史補充教材教授參考書 卷二》(1922년 12월)을 보면 한일합방까지의 시기가 상세히 해설되어 있어 小田省吾 내지는 학무국 편집과가 그러한 근대사 관련 사항을 가르치는 것을

사료·출전을 명시하는 형태로 기술하는 것은 망설여졌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용해야 하는 사료도 방대한 양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사편수회가 속수무책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도중에 촉탁으로서 《조선사》 편찬에 참가하고 《조선사》 간행 종료 후에는 편찬주임으로서 실질적으로 편수회를 이끌었던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1897~1945)는 자신의 연구를 계속하는 한편 1937년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문서과에 보관된 일본공사관·한국통감부 공문서를 조사·촬영하고, 또 경성제국대학에 이관된 옛 규장각도서 중에서 옛 대한제국 기밀문서 조사를 진행하고 제2차 대전 말기에는 《近代朝鮮史研究》(1944년)을 간행하는 등 다가올 ‘병합사’ 편찬 시기에 대비하고 있었다.<sup>17)</sup> 그리고 또 오늘날에도 명저로 이름 높은 다보하시의 《近代日鮮關係の研究》(1944년 간행)가 완성되는 것도 《조선사》 간행 종료 후의 편수회의 조직 없이는 성립할 수 없었다. 단 이 책은 비밀출판으로 일반에 판매 공간되지 않았다. 또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국사학과에 학위논문으로서 제출되었지만 심사를 맡은 주임교수 히라이즈미 기요시(平泉澄)가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전해지는<sup>18)</sup> 책이기도 하다. 그것은 차치하고 근대사분야에 관해서는 사료의 수집 그 자체는 계속되고 또 1930년부터 오다 쇼고를 중심으로 조선국왕·대한제국황제의 ‘실록’ 편찬도 이왕직·중추원 사업으로서 개시되었다. 또 ‘사료수집위원’으로서 민간에서 기쿠치 겐조(菊池謙讓)도 편찬에 가세하는<sup>19)</sup> 등 다가올 ‘근대사’ 내지는 ‘병합사’의 서술을 강하게 의식한 같은 시대의 사람들의 修史 활동이 더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단지 오다 쇼고가 ‘사료는 종래 역대 실록의 편찬과 동시에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을 주’라고 하면서 ‘체제는 대체로 《철종실록》을 표준으로 하여 그를 모방하고’<sup>20)</sup> 있다고 설명하였듯이 조선왕조·대한제국의 ‘正史’ 서술 스타일을 준수하는 형식에도 상당히 강한 고집을 보이고 있었다.

무시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17) 中村榮孝, 1953.2 <朝鮮史の編修と朝鮮史料の蒐集 -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の事業 - > 《古文化の保存と研究 黒板博士の業績を中心として》(黒板博士記念會) 424. 또 한국 국사편찬위원회에는 《昭和十四年九月 吉林新京奉天旅順大連史料採訪復命書》《昭和十七年三月三十一日 北支及中支出張復命書》·《昭和十九年十月 忠清南道史料採訪復命書》(모두 일문 타이프 등사) 등 田保橋가 戰時期에 修史官 田川孝三을 동반한 사료조사에 관한 관련자료가 남아 있다.

18) 東方學會 編, 2000.5 <先學を語る - 田保橋潔先生 - > 《東方學回想Ⅴ 先學を語る(4)》(刀水書房, 東京)

19) 《高宗純宗實錄》 권48 및 《純宗皇帝實錄》 권4 (한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高宗純宗實錄》으로 1970년에 영인 간행)의 각 권말에 실록 편찬 위원의 이름이 실려 있다.

20) 小田省吾, 1933.8 <李王職の實錄編纂事業に就て> 《青丘學叢》 13, 187

### Ⅲ. 경성제국대학·조선총독부 중추원·이왕직 각각의 ‘사료편찬’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 통치하의 한국에서는 행정 주도의 사료 수집·고적조사가 선행되었고 또 관료조직 중에서 초기에는 오다와 같은 교육행정·학계·대학·사료편찬을 무대로 삼는 인재도 배출되었다. 또한 조선사편수회 사업이 일단락되어 그 조직이 축소되자 이번에는 이를 대신하는 존재로서 경성제국대학 특히 법문학부 사학과 교수진과 구한국 이래 고서적을 방대하게 소장한 대학 도서관(특히 ‘규장각’ 도서)의 존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춘 형태로 이 분야에서의 지위<sup>21)</sup>를 끌어올렸다.

또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사학과에는 당초부터 ‘조선사학강좌’가 강좌가 2개나 확보되어 있었다. 제1강좌는 이마니시 류에서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로, 또 제2강좌는 오다 쇼고에서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로 인계되었다. 또 18회의 졸업기 중에 조선사학 전공 졸업논문은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제16회(1943년 9월 졸업<sup>22)</sup>)까지 選科수료를 포함하여 30개에 이르며 그 민족별 내역은 한국인:일본인=16:14였다. 덧붙여 졸업 후의 진로는 内地의 제국대학과 같이 중학교·고등보통학교·각종 실업학교 등 중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케이스가 많고 또 제1회생 申奭鎬<sup>23)</sup>, 제2회 尹瑢均, 제3회 다가와 고쥬(田川孝三)는 각각 조선사편수회에 채용되었다.

그런데 경성제국대학은 독자의 사료 수집 部局을 정비하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구한국정부에서 총독부로 인계되어 최종적으로 대학에 이관된 ‘규장각’ 도서를 1935년부터 조선사편수회 인원을 동원하여 ‘규장각총서’ 시리즈로 패전 직전까지 간행을 계속하는

21) 사학과만이 아니라 법문학부 전체의 학술적 활동에 관해서 가장 망라적으로 기술한 문장으로 田川孝三, 1974.10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と朝鮮文化> 《紺碧遙かに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京城帝國大學同窓會)를 들 수 있다.

22) 뒤에 실린 【참고 3】을 참조 바란다. 또 《京城帝國大學學報》 1~202호(1926~1944년)·《京城帝國大學豫科一覽》·《京城帝國大學一覽》·《京城帝大史學會報》 1~18호·《學叢》(京城帝國大學文學會) 1·3호 등에서 확인과 조회 작업을 하였다.

23) 1904~1981년. 專檢 합격을 거쳐 京城帝國大學 예과에 입학하였다. 1929년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사학과·조선사학 전공) 졸업 후 조선사편수회 촉탁에 채용되었다. 그 후는 修史官補(屬官)에서 編修官(本官)으로 계속 진급했다. 해방 후에는 고려대 성균관대 등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국사 교과서 집필 편집이나 국사담당교원을 양성하기도 한 ‘國史館’(후에 국사편찬위원회)의 설립에 진력했다.

등 소규모로나마 ‘사료편찬’과 그 학술적 보급을 꾀하고 있었다. 원래 이것은 이미 1929년말 시점에서 프로세스 製版에 의해 《조선왕조실록》(太白山本)이 영인 간행된 것이고, 30부 한정으로 작성된 《조선왕조실록》 리프린트판은 결과적으로 관동대지진으로 잿더미가 된 동경제국대학의 移管本(五臺山本)의 상실감을 없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중층적, 輻輳한 인간집단에 의해 창출되어 간 조선사의 ‘修史’ 혹은 ‘사료편찬’의 정치적 프로세스는 당연히 일본의 한국 통치 하의 ‘근대’에 단단히 속박된 것이라고 해도 그 편찬 콘셉트 그 자체는 동양사·중국사의 ‘정사’ 편찬 방식을 우직할 정도로 답습하고자 했던 것이다. 게다가 근대사학에서는 엄밀한 사료비판, 고대사에는 紀年 일치 등이 추구된 이상 역사서술의 일정한 ‘윤색’이나 ‘사료조작’에 항상 자각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조선사편수에 의한 《조선사》를, 혹은 ‘조선사학’ 그 자체를 직시할 때 모든 의미에서 ‘정사’ 편찬과 그 서술의 場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 IV. 조선사 교육과 국사(일본사) 교육의 사이

본 절에서는 이상의 사료 수집과 편찬에 입각한 역사 서술의 실천, 특히 초등 교육 현장의 역사교육 동향에도 시선을 두고 싶다. 즉 합방 전후 시기부터 1920년대까지의 역사교과서 편찬을 담당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학무 관료 시대의 오다 쇼고이고 또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어받은 사람이 《조선사》 간행 종료와 더불어 조선사편수회 修史官에서 학무국 편수관으로 배치가 변경된 나카무라 히데타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 통치기의 한국에서 제3차 개정 조선교육령(1938년 3월) 이전의 ‘국사’ 교육은 내지인 자제 대상, 즉 소학교·중학교·고등여학교 등의 교과목으로서의 그것과 한국인 자제 대상, 즉 보통학교(6년제, 4년제에서는 교수하지 않음)·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의 그것으로 크게 나뉘어 있다. 내지인 자제에게는 당초 문부성 교과서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주로 한국인 자제 대상의 ‘국사’ 교육에서는 ‘보충교재’로서 조선사 관련 사실을 삽화나 別課 형식으로 교수하고 있었다. 아래에 우선 시기별로 교과서를 열기해 보자.

###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

《尋常小學國史補充教材 卷一 兒童用》(1920년 12월)

《尋常小學國史補充教材 卷二 兒童用》(1920년 12월)

###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

《朝鮮事歷補充教材》(1922년 3월)

《普通學校國史 上卷 兒童用》(1922년 12월)

《普通學校國史 下卷 兒童用》(1922년 12월)

《普通學校國史 卷一》(1932년 3월)

《普通學校國史 卷二》(1932년 3월)

### 제3차(~4차)조선교육령 시기

《初等國史 卷一》(1937년 3월 改訂 翻刻)

\* 1932년 판 《普通學校國史》를 개정

《初等國史 卷二》(1938년 2월)

《初等國史 第五學年》(1940년 3월)

《初等國史 第五學年》(1944년 3월 翻刻)

《初等國史 第六學年》(1941년 3월 翻刻)

《初等國史 第六學年》(1944년 3월)

1919년 3·1독립운동을 거치면서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 연한을 지금까지의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내지인 대상의 소학교에서만 행해지고 있던 ‘국사’ 교육을 한국인 아동에게도 실시하기로 했다. 그래서 1922년 2월에 조선교육령 개정이 되자 그때 도입된 《普通學校國史》는 내용면으로는 《尋常小學國史》에 <朝鮮事歷>을 보충한 형태로 조선사의 내용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미 제1차 조선교육령 말기에는 《尋常小學國史補充教材》가 작성되어 <朝鮮事歷教材>의 내용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적당히 참조하여 보충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또 1922년 판의 《보통학교국사》에서는 조선사 관련 사항은 아직 독립한 課가 아니라 ‘朴赫居世王 / 新羅一統 / 王建 / 大覺國師 / 朝鮮の太祖 / 李退溪と李栗谷 / 英祖と正祖 / 朝鮮の國情’으로 구성된 토픽 항목으로서 삽입되어 있었다. 이것이 1932년 판에는 ‘第五 昔の朝鮮 / 第十一 新羅の統一 / 第十六 高麗の王建 / 第二十四 高麗と蒙古 / 第三十二 朝鮮の太祖 / 第三十七 李退溪と李栗谷 / 第四十四 英祖と正祖 / 第五十一 朝鮮の國情’으로 각각이 독립과 課가 되었다.

그런데 위의 《보통학교국사》의 조선사 관계 부분 첫머리에는 모두 ‘箕子’가 등장했다. 이 교과서의 교사 매뉴얼인 《尋常小學日本歴史補充教材教授參考書》(권1 / 조선교육연구회 편, 1920년 4월, 권2 / 1922년 12월) 및 《普通學校國史教授參考書(朝鮮事歷教材)》(1923년 3월)에는 ‘조선반도에 나라를 세운 것 중에 가장 오래 전부터 전해지는 것은 앞서 적힌 箕子이지만 그보다 더 이전에 檀君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왕왕 믿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한 마디 해야 한다’고 하며 단군 전설의 설명에 여러 쪽을 할애하여 후년의 조선사편수회에서의 논쟁과 같이 단군의 사실성에 대해 실제 사료를 들어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 ‘이조시대 유명한 학자로서 그 전설의 妄誕不稽을 믿기에 족하지 않다는 것 또 그 전설이 승려의 손으로 날조되어진 것이라고 논하는 것이 적지 않다. 근래 내지의 학자 역시 모두 동일한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본서는 이 전설을 채택하지 않는다’<sup>24)</sup>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조선사의 학습으로서는 일관성을 가지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天皇機關說’ 문제나 ‘國體明徵’ 운동으로 떠들썩했던 1930년대 전반에 국사교과서의 조선사 교육은 큰 후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모리타 요시오는 ‘국사에서 조선사 사항이 課로서 독립해 있던 것들에 대해 엄격한 비판이 일어났고, 때마침 만주사변 발발 후 일본 국내에서는 국체명칭, 皇道主義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다’<sup>25)</sup>라고 하였다. 한국 내에서 구체적으로 게다가 누구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는지에 대해 현재 본고에서는 자세히 할 수 없다. 여하튼 1938년 제3차 개정조선교육령 하의 《初等國史》 편찬은 그런 시세를 강하게 반영하면서 이루어졌다.

1935년 2월에는 또 ‘臨時歴史教科用圖書調査委員會’<sup>26)</sup>가 관제화되어 다음번 교과서

24) 朝鮮教育研究會 編, 1920.4 《尋常小學日本歴史補充教材教授參考書》 卷一, 9 및 1923.3 《普通學校國史教授參考書(朝鮮事歷教材)》 10. 이들의 집필자는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小田岳吾, 1926.2 <謂ゆる檀君傳説に就て> 《文教の朝鮮》 6의 내용에서도 오다 본인이라고 거의 단정할 수 있다.

25) 森田芳夫, 앞의 《韓國における國語・國史教育》 141

편찬이 계획되기에 이른다. 다시 모리타 요시오의 말에 따르면 ‘역사교과서를 조사 검토한 결과 조선사관계 사항이 국사의 주체를 이루어야 할 교재와 연락통일이 결여되어 이원적으로 된 것, 또한 일본인, 조선인이 별개의 교과서로 지도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지적되었다’<sup>27)</sup>라고 하였다. 1937년 3월 원래의 《보통학교국사》를 개정 번각한 형태로 배포된 《초등국사》는 당시의 ‘內鮮一體’ 정책, 특히 문교행정적으로는 보통학교를 소학교로,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로 변경하는 시책에 즉각 대응하는 형태 즉 예를 들면 원래의 箕子나 朴赫居世 이야기가 ‘진구황후(神功皇后)’ 과에 편입되는 등 내용을 축소하면서도 ‘국사’의 기술과 병렬하여 기술되는 체제가 취해진 것으로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아동만이 아니라 ‘국어를 상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조선사 사항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교과서는 언뜻보아도 누덕누덕 짜깁기한 느낌을 불식할 수 없는 신통찮은 교과서가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구관’ 《초등국사》에 비해서 1940년 3월에 간행된 신관 《초등국사》는 새로운 구상을 갖고 편찬된 것이었다. 그 국사교과서 편찬의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나카무라 히데타카였다.

《日鮮關係史の研究》(1969년 간행) 저작 등으로 戰後 이 분야에서도 큰 족적을 남긴 나카무라는 이미 말했듯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은사 구로이타 가쓰미의 주선으로 신설된 조선사편수회에 들어간다. 그리고 수사관으로서 오랫동안 사료 수집과 《조선사》 편찬업무에 종사했다. 그리고 조선사편수회에 의한 《조선사》 간행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937년 10월부터 총독부 학무국 편집과로 전임<sup>28)</sup>되어 그 과의 편수관(1940년 4월 22일부로 敎學官도 兼官<sup>29)</sup>, 1945년 3월 7일부로 교학관 전임<sup>30)</sup>, 같은 해 6월 16일부로 편

26) 임시교과서조사위원회는 1928년 6월부터 조선총독부 내에 설치되어 위원장은 정무총감이 맡고 위원에는 경성제국대학 교수나 중추원 참의들이, 또 간사로는 학무국 시학관·편수관이 취임하였다. 또한 1930년 단계의 위원장은 兒玉秀雄이고 小田省吾도 위원으로서 참가하였다(1930.7 《昭和五年七月一日現在 朝鮮總督府及 所屬官署職員錄》).

27) 森田芳夫, 앞의《韓國における國語・國史教育》 142

28) 단 단순한 배치는 아닌 것 같다. 《조선총독부관보》에 따르면 1937년 6월 26일부로 만주건국대학교 교수로 진출한 稻葉岩吉과 함께 修史官을 ‘依願免本官’(동 3137호)되고 다시 같은 해 10월 1일부로 편수관에 재임관(동 3218호)하는 인사 수속이 취해지고 있다. <中村榮孝教授略歷・著作目録>(1966.3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41[史學14])에도 1937년 6월 26일부로 학무국 편집과 촉탁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中村榮孝(인터뷰어 田中健夫·北島萬次), 1981.9 <國史學界の今昔⑫ 朝鮮史と私> 《日本歴史》 400에도 官歴에 관한 약간의 언급이 있지만 이런 임용 수속의 자세한 내용은 불명확하다.

29) 《朝鮮總督府官報》 제3979호, 1940년 4월 30일 <叙任及辭令>

30) 《朝鮮總督府官報》 제5428호, 1945년 3월 12일 <叙任及辭令>

수관을 다시 兼官<sup>31)</sup>으로서 주로 ‘국사’교과서 편찬 사무와 교육 방침 책정에 종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나카무라가 학무국에 근무하고 있던 당시 편수과장 시마다 우시와카(島田牛稚)<sup>32)</sup>는 히로시마(廣島)고등사범학교 출신의 오랜 사회교화 경험이 있는 중등학교 교원 경험자였고 또한 동료 편수관들도 다수가 학교 현장에서부터 ‘차근차근 밝아오른’ 관리, 경성제국대학 출신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참고로 1942년 당시 학무국 편집과 관원배치(고등관 이상)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編修官三等二級 課長從五勳五	島田牛稚
編修官四等一級 從五勳六	中村榮孝
同 四等四級 正六勳六	富山民藏
同 五等五級 從六勳六	吉田正男
同 五等六級 從六	金子昌鈞
同 五等六級 正七	森田梧郎
同 六等六級 正七	木下好治
同 七等八級 從七	廣瀬續
理事官七等七級 從七勳七	戶之内三郎

출전 : 1943.3 《昭和十七年七月一日現在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31) 《朝鮮總督府官報》 제5517호, 1940년 6월 26일 <叙任及辭令>

32) 島田牛稚(시마다 우시와카)의 판명된 경력은 아래와 같다.

에히메(愛媛縣) 출신, 1888(明治21)년 9월 4일생. 히로시마(廣島)高等師範學校 德育專攻科 졸업. 야마구치(山口)현 사범학교 부속 소학교 主事. 오테마에(大手前)고등여학교장(재임 : 1935년 11월~36년 9월). 오사카부(大阪府) 視學官·督學課長·학무과장·사회교육과장·오사카부(大阪府)教護連盟理事長. 경기도시학관(1938년 7월).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수관·편집과장(1940년 4월~1944년 3월)·경성보도연맹 이사장. 경기공립중학교장(1944년 4월~1945년). 가타노(交野)여자전문학교 교수. 도요나카(豊中)市 학무과장(1947년). 도요나카시 교육장(1950~60년대). 도요나카시 교육연구소장(재임 : 1949년 4월~1952년 10월). 바이카(梅花) 단기대학 가정과 교수(도덕교육담당 : 1967~1969년경 재직한 듯)

주요저작 : 《小學校に於ける歴史教材の敷衍と附説》 上·下(目黒書店, 東京 上: 1918.4, 下: 1918.12) / 1920.9 《世界地理變動教材の解説》(目黒書店, 東京) / 1926.1 《現代教育諸相の由來と批判》(寶文館, 東京) \* 鎌塚扶(京城師範學校教諭)와 共著 / 1927.8 《國史教育論及日本女性の研究》(高橋南益社, 大阪) / 1928 《國民精神の史的考察と吾等の覺悟》(大阪府督學課, 大阪) / 1933.11 《兒童生徒校外生活指導に關する研究》(大阪府中等學校校外教護連盟, 大阪) / 1934.10 《校外教護事業に關する研究》(大阪府教護連盟, 大阪) / 1943.4 《母親讀本》(朝鮮公民教育會, 京城) / 1947.8 《母親讀本》(千代田出版社, 大阪) / 1960.9 《時代に歩む母》(大阪教育圖書株式會社, 大阪) / 1972.8 《これからの母親讀本》(大阪教育圖書株式會社, 大阪) / 1982.3 《これからの家庭教育》(大阪教育圖書株式會社)



또한 위의 표에서, ‘金子昌均’은 경성제국대학 사학과 제1회 졸업생인 金昌均의 創氏名이고【참고3】참조, 이후 충청남도 大德郡守로 진출(1943년 1월 23일부, 1945년 5월 18일부로 靑陽郡守로 배치 변경)하였다. 게다가 모리타 고로(森田梧郎)와 히로세 쓰즈쿠(廣瀨續) 두 명은 국어교과서 편집담당관이고 모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選科를 수료하였으며(모리타는 후에 본과도 졸업) 재학 중에는 국문학자 다카기 이치노스케(高木市之助)<sup>33)</sup>의 지도를 받았다. 덧붙여 1944년 3월 31일자 인사이동으로 경기중학교장으로 진출된 시마다의 후임 발령으로 춘천사범학교장 이쿠라 겐지(伊倉健治)가 편수과장에 보직<sup>34)</sup>되었다. 또 요시다 마사오(吉田正男)는 1944년 7월 31일부로 전라남도 시학관으로 옮기고<sup>35)</sup> 그 후임으로는 경성여자사범학교 교수 와타나베 가쓰야(渡邊勝也)가 부임<sup>36)</sup>했다. 또 도미야마 다미조(富山民藏)도 1944년 3월 31일부로 경성제삼고등여학교로 진출<sup>37)</sup>되고 새로 도시미쓰 쓰토무(利光勉)가 1944년 11월 21일부로 경성旭丘중학교에서 착임<sup>38)</sup>하는 등 일단은 1944년도 내에 편수과 인원은 거의 쇠신되었다. 단 전시 말기의 기구 축소개편으로 편수과는 1945년 4월 17일부로 폐지되고 각 편수관은 학무국 소속인 채, 경우에 따라서는 칙령 제63호(1945년 2월 13일<sup>39)</sup>)에 근거하여 현 관직 그대로 경기도 재근(이쿠라 겐지/1945년 4월 7일부<sup>40)</sup>), 혹은 경성부 재근(모리타 고로·토노우치 사

33) 森田梧郎(1896~1950, 니가타(新潟)현 시마타(新發田) 출신)에 관해서는 즐고, 2008.3 <戰時下の朝鮮における《醇正なる國語》の再編成> 《史鏡》 56을 참조 바란다. 또 廣瀨續(1904~몰년 미상, 구마모토(熊本)현 다마나(玉名) 출신)은 다마나중학교에서 히로시마(廣島)고등사범학교 제2임시교원양성소를 거쳐 교직에 나가 야마나시(山梨)현립 히카와(日川)중학교 教諭(1925년)에서 경성공립 상업학교 교유(1927년)로 옮긴 후 조선총독부 학무국 촉탁(1934년)·同 편수서기(1937년)·同 편수관(1942)을 맡았다. 전후에는 고향 구마모토로 돌아가 1947년부터 舊制 다마나중학교·新制 다마나고등학교 교유를 근무한 후 1962년부터는 진제이(鎭西)고등학교 및 신와(眞和)중학교·고등학교에서 영어와 국어의 교편을 잡았다(학교법인 鎭西學園 소장 <직원이력서>의 기록에 근거한다. 열람을 허가하신 학원의 上田祐規 이사장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아뢴다.)

34) 《朝鮮總督府官報》 제5154호, 1944년 4월 12일부 <叙任及辭令>

35) 《朝鮮總督府官報》 제5249호, 1944년 8월 3일부 <叙任及辭令>

36) 《朝鮮總督府官報》 제5249호, 1944년 8월 3일부 <叙任及辭令>

37) 《朝鮮總督府官報》 제5154호, 1944년 4월 12일부 <叙任及辭令>·제5155호, 1944년 4월 13일부 <叙任及辭令>

38) 《朝鮮總督府官報》 제5344호, 1944년 11월 27일부 <叙任及辭令>

39) 관보에 고시 게재된 칙령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쇼와(昭和) 20년 2월 13일 칙령 제63호 대동아 전쟁의 때에 철강, 석탄, 경금속, 선박, 항공기 등 중요군수물자의 생산 확충, 주요 식량의 확보, 방위 철저 강화 기타 종합국력 확충운용상 긴급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本屬 장관은 그 지시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임시로 그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본령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내각총리대신이 정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관보》 5423호, 1945년 2월 14일자)

부로(戶之內三郎)/1945년 4월 18일부<sup>41)</sup>)라는 형태로 분산 배치되었다.

하여튼 우선은 나카무라에 의한 신판 《초등국사》 편집방침을 그의 말을 빌려 정리해 보자. 나카무라는 역사교과서에 이용된 역사 사료에 대해,

국사교재는 재료를 과거의 역사 사실에서 뽑는다. 따라서 교재는 엄밀히 전문 학술적 견지에서 검토된 정확한 사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국사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史實의 기억도 재현도 아닌 것이다. 사실을 통해서 행하는 역사적 이해력의 육성이며 나가서는 백반의 사회 事象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힘과 엄정온건하고 타당한 비판의 힘을 계발하고 기르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sup>42)</sup>

라고 말해 사료비판 및 그것에 근거한 역사 서술과 역사교육 그 자체의 위치 설정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어디까지나 교육방법과 단계적 이해력의 함양에 중점이 두어진다고 하였다. 게다가 나카무라는 교육 항목 순서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直進法에 의한 국사 일회의 학습법을 고쳐 특히 순환의 방법에 의해 제5학년에서는 우리나라의 독자성 이해에 목표를 두고 (중략) 제6학년은 우리나라의 세계성 이해를 목표로 한다

라고 과거의 《보통학교국사》나 구판 《초등국사》에 보이는 종래의 단선적인 사항 배열을 고친다고 한 다음,

대외관계가 경시되고 있는 것은 종래 尋常小學校의 국사교육의 일대 결함이었다. (중략) 해외적 섬나라(島國)적 봉건적인 국사 전통이 존중되는 사회가 이런 국사교육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편이 마땅할 것이다. 종래의 국사교육에서 이른바 武家政治에 대한 인식만큼 국사 발전에 대한 기본적 체계의 이해를 왜곡한 것은 없다.

라고 특히 舊 《초등국사》에서 보였던 일본사와 조선사의 부정합적 측면을 순환적으로 바꾸어 가르치는 것으로 종래의 자칫하면 영웅담·전쟁사관으로 흐르기 쉬운 역사서술을 극복하려 하고 게다가 그것을 철저하다고 할 정도까지 대외관계 기술에 중점을 둔 점이 획기적이었다. 예를 들면 그 방증으로서 아래에 보이는 1944년 판의 《초등국사》의 중세사 특히 일본과 한국 관계 기술을 살펴보자. 이 교과서는 아마 한국 통치기의 가장

40) 《朝鮮總督府官報》 제5459호, 1945년 4월 19일부 <叙任及辭命>

41) 《朝鮮總督府官報》 제5464호, 1945년 4월 25일부 <叙任及辭命>

42) 中村榮孝, 1940.9 <朝鮮に於ける國史教育> 《朝鮮》(조선총독부) 304



【참고】 《초등국사 제6학년》(조선총독부, 1944년 3월)에서 발췌

말기에 편찬된 교과서이다. 그 내용을 보면 확실히 문장의 앞머리에 늘 각 대 天皇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일종의 연호 표기를 대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三浦’, ‘和(倭)館’ 등 한국 측의 사료로 해명된 사실을 삽화로 소개하는 등 이 점에 함정 해서 본다면 역시 거기에 무언가 선구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산재해 있다. 물론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國體의 本義’에 근거한 皇道意識을 널리 알리는 톤으로 관철 되어 있다. 1940년 6월에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동아 신질서의 건설과 고대 대륙 경영의 선례(東亞新秩序の建設と古代大陸經營の先蹤)》에서도 나카무라는 ‘동아 신질서의 건설은 이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륙 경영 그 자체이며 우리 국사 발전 그 자체이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대륙 경영, 우리 국사의 발전은 요컨대 우리 국가 이상의 확충 발전에 다름 아니다’고 하면서, ‘狹隘固陋한 견지에서 국가관념을 顯揚하고 민족의식을 昂揚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사적인 또한 전인류를 위한 성업<sup>43)</sup>’이라고 하여 언뜻 보기에도 다소 흥분한 필치로 고대 한일관계사를 그리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점을 바꾸면 조선사편수회의 編史·사료 탐방에 뒷받침되어 또 본래의 관심사인 中近世 한일관계사의 조명작업의 整습을 꾀한 것이기도 해서 확실히 이

43) 中村榮孝, 1940.6 《亞新秩序の建設と古代大陸經營の先蹤》(조선총독부, 京城) 2~4

전의 《보통학교국사》의 ‘滿鮮史’관에 입각한 국사/조선사 교육에 결별을 선언했다고 바라보는 과정은 반드시 핵심을 잘 포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하튼 이런 나카무라 히데타카류의 ‘內鮮一體’사관<sup>44)</sup>은 교과서 편찬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당시 한국 내의 지식층 독자가 많았던 綠旗聯盟에서 발행한 잡지(《綠旗》[《興亞文化》]/《新女性》)에의 기고<sup>45)</sup> 등의 형태로도 세상에 발표하였다. ‘초등·중등 교과용 도서를 通觀하면 일관된 피아 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 참고도서류에도 거의 이 점에 유의한 것을 볼 수 없다. 단지 조선 내의 조선인 교육을 위해서 총독부가 다소 주의를 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중략) 이러한 바른 인식은 단지 조선통치를 위해서만 요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총체를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46)</sup>’고 나카무라가 오히려 일본인·일본 사회의 ‘국사’ 인식 혁신을 추구한 자세에 모리타를 비롯한 녹기연맹의 멤버가 공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실제로 모리타는 신관 《初等國史 第五學年》이 간행된 전해 가을에 나카무라에게서 새로운 교과서 편찬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sup>47)</sup>고 하고 ‘이 《초등국사》가 취하고 있는 역사 파악 이념은 동시에 또 《동양사》에, 또 《서양사》에 혹은 동양사와 서양사의 일체로 본 《세계사》 그 자체의 파악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sup>48)</sup>’라며 나아가서는 전시하의 일본에서 일세를 풍미한 교토학과(京都學派)의 ‘근대의 초극’, 혹은 그 중요 멤버인 고야마 이와오(高山岩男)의 ‘세계사 구상’을 방불케 하는 ‘세계사’ 서술의 한 귀결로서 《초등국사》는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나카무라는 전시 말기인 1945년 6월 6일부로 간사

44) 三鬼清一郎, 2000.6 <朝鮮役研究史の一齣 -中村榮孝氏の業績をめぐって-> 《織豊期の政治構造》(吉川弘文館, 東京)에 中村의 ‘내선일체’론을 ‘임진왜란(文祿・慶長の役)/조선출병’ 연구의 흐름에서 정리를 시도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사실 관계의 오류가 적지 않지만 일본 근세사 연구 입장에서, 게다가 나고야(名古屋)대학의 中村 이후 국사학 강좌 담당자에 의한 논점 정리로서 귀중한 시점을 포함하고 있다.

45) 中村에 의한 戰前期의 문교행정·역사교육에 관한 문장은 뒤에 실린 【참고 2】에 따른다. 앞의 <中村榮孝教授 略歴・著作目録>에서는 빠진 것이 많다. 또 특이한 사회계량단체로서 알려진 綠旗聯盟과 그 발행물에 관해서는 좋고, 2003.2 <昭和戰前期の朝鮮における‘右派’學生運動史論> 《九州史學》 135 및 2009.6・2009.9 <<綠旗>>とその時代 -影印復刻板《綠旗/興亞文化》誌の解題に代えて->(影印復刻板《綠旗》 제1권 및 별권 색인에 실림)(オークラ情報サービス)를 참고 바란다.

46) 中村榮孝, 1935.8 《朝鮮史(‘朝鮮教育講座’ 제2부 자료편)》(四海書房, 東京) 1

47) 森田芳夫, 1940.5 <<初等國史>>(第五學年用)を讀みて -總合生活學の一建設として> 《綠旗》 5-5. 이 글에 수록되어 있는 中村의 발언에 따르면 신관 《초등국사》는 辻善之助(東京帝國大學 사학과 교수)에게 교열과 교정까지 의뢰하여 작성되었고 그래서 森田은 ‘實物을 보고 내용을 일독하고 완전히 현신적인 책이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위의 잡지 43쪽)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48) 위의 <<初等國史>>(第五學年用)を讀みて> 48

로서 교학관을 겸직하는 형식으로 조선사편수회에 복귀<sup>49)</sup>하였다. 단 이것은 반드시 編史 작업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다보하시 기요시 사후 조선사편수회가 학무국 기능 축소와 연동하여 ‘戰時 사상 보급<sup>50)</sup>’이라는 일종의 사회 교육적 조직으로의 전환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확실히 조선총독부의 문교시책 전반을 잘 아는 학무관 요인 나카무라 밖에 책임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 맺음말

조선사편수회도 전시하에서 서서히 그 기구가 축소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덧붙여 1942년 단계에는

會長	政務總監 田中武雄
顧問	東京帝國大學名譽教授 黑板勝美/ 京城帝國大學校總長 篠田治策
委員	小田省吾/ 李能和/ 李秉韶/ 崔南善/ 京城帝國大學教授 藤田亮策/ 財務局長 水田直昌/ 李王職長官 李恒九/ 殖產局長 上瀧基
會務囑託	司政局長 鈴川壽男
幹事	中樞院書記官 筒井竹雄/ 中樞院書記官 永田種秀/ 中樞院書記官 朴富陽
修史官	寺谷修三/ 田川孝三
修史官補	陸軍中尉 黑田省三/ 園田庸次郎
書記	中樞院屬 可知清次郎(兼)/ 前田耕三 *원문 그대로

라는 포진이었지만(출전:《昭和十七年七月一日現在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이것이 1944년 초의 단계에는

會長	政務總監 田中武雄
委員(會務囑託)	學務局長 大野謙一
幹事	學務課長 本多武夫/ 中樞院書記官 新居廣
編纂主任	京城帝國大學教授 田保橋潔
修史官	寺谷修三/ 田川孝三
修史官補	黑田省三/ 園田庸次郎
書記	前田耕三

49) 《朝鮮總督府官報》 제5502호, 1945년 6월 8일부 <敍任及辭命>란

50) 《每日新報》 1945.5.18일자 2면, <朝鮮史編修會非常措置 戰時思想指導에 新出發>

라는 구성으로 축소되었다(출전:朝鮮史編修會研究彙纂 제1집《近代朝鮮史研究》[1944년 3월] 권말 명부에 근거함). 얼마 안 있어 1945년 초에 다보하시가 타계하고 또 교학관인 나카무라 히데타카에 관해서는 전시 말기에 본부과장급인 고등관에 배당되었던 조선사 편수회 ‘간사’ 취임이 발령되었던 것은 앞서 보았던 대로이다. 곧이어 8월 15일을 맞이해 일본에 의한 한국 통치가 종료함과 동시에 조선총독부의 업무도 미군정에 인도되었는데 이것은 조선사편수회도 같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미군정기인 1946년 3월에 설립된 ‘國史館’을 거쳐 건국 직후 대한민국에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창립(1949년)에 진력했던 것이 앞서 그 이름이 거론된 데라타니 슈죠(寺谷修三) 즉 ‘광복’ 후 성명을 복구하여 다시 創氏名에서 舊名으로 돌아오게 된 옛 조선총독부 편수관 신석호, 바로 그였다.

또한 신석호가 집필한 학교교육용의 ‘검정’ 역사교과서는 이미 1948년 8월에 인쇄·발행되었다(《文敎部新教授要目依據 중등학교 사회생활과 우리나라의 생활(국사부분)》(동방문화사 간행)). 이에 앞서 진단학회가 편집한 《國史敎本》이 군정청 문교부에서 1946년 5월에 출판되었다. 신석호가 집필한 교과서는 제목과 내용의 변천을 거쳤지만 최남선 등의 교과서와 함께 ‘教授要目’기(1946~1954년)부터 ‘제1차 교육과정’기(1945~1963년)를 거쳐 한국에 국정교과서가 도입되기 이전인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4년)까지 오랫동안 계속 사용되었다. 또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단군’에 관한 기사는 각 교과서의 첫머리 부분을 장식하게 되었지만 ‘箕子’에 관한 기술도 일정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sup>51)</sup> 실증사학의 입장에서는 기사도 또 완전히 무시될 수 없는 존재였다. 이 점이 제3차 교육과정 이후 ‘국정’ 교과서와는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51) 예를 들면 최남선은 ‘箕子’란 단군이라는 말이 전화된 ‘케야지’(‘태양의 자식’이란 뜻이 된다)라고 하여 단군과 기자의 연속성을 설명하고(최남선, 1962 《國史》(民衆書館) 또 신석호는 어디까지나 평양에 활거했던 낙랑군 漢人들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였다(신석호, 1948 《우리나라의 생활(국사부분)》(東邦文化社) 16~17).

참고 : 일본 통치기의 ‘조선사’학 계통(개념도)

滿鮮 史系	나카 미치요 (那珂通世)	시라토리 구라키치 (白鳥庫吉)	쓰다 소키치 (津田左右吉)	이마니시 류 (今西龍)	다가와 고조 (田川孝三)
	하야시 다이스케 → (林泰輔)	나이토 도라지로 → (内藤虎次郎)	이케우치 히로시 → (池内宏)	오다 쇼고 → (小田省吾)	申奭鎬
	리스	이나바 이와키치 (稻葉岩吉)			

국사 학계	시게노 야스쓰구(重野安綱)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구메 구니다케(久米邦武)	쓰지 겐노스케(辻善之助)	→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참고1】 오다 쇼고의 역사 교육 행정 관련 논문 목록(稿)

- 1913.8 <朝鮮に於ける小學校教育と内地觀念の養成とにつきて> 《朝鮮教育會雜誌》 20
- 1914.6 <郷土資料としての朝鮮都市村落を論ず> 《朝鮮教育會雜誌》 29
- 1914.11 <小學日本歴史教授に於ける年代觀念の養成に就きて> 《朝鮮教育會雜誌》 34
- 1915.1 <朝鮮史要略> 《朝鮮教育會雜誌》 36
- 1915.2 <朝鮮史要略(續)> 《朝鮮教育會雜誌》 37
- 1915.3 <朝鮮史要略(完)> 《朝鮮教育會雜誌》 38
- 1917.6 <朝鮮總督府に於ける教科書編纂事業の概要(一)> 《朝鮮教育研究會雜誌》 2 1
- 1917.7 <朝鮮總督府に於ける教科書編纂事業の概要(二)> 《朝鮮教育研究會雜誌》 22
- 1918.4 <朝鮮古書に見えたる日本の國體並に國情に關する記事> 《朝鮮教育研究會雜誌》 31
- 1918.5 <朝鮮古書に見えたる日本の國體並に國情に關する記事(承前)> 《朝鮮教育研究會雜誌》 32
- 1919.2 <朝鮮半島に古昔果して羊ありや> 《朝鮮教育研究會雜誌》 41
- 1919.7 <平和克復後の教育> 《朝鮮教育研究會雜誌》 46
- 1919.10 <時勢民度と國度民情> 《朝鮮教育研究會雜誌》 48
- 1922.2 <教科書編纂上より見たる取扱上の注意(講話)> 《朝鮮教育》 6卷5號
- 1922.3 <新教育令の公布と教科書に就て> 《朝鮮教育》 6卷6號
- 1923.2 <新教科書は斯ういふ方針で編纂した> 《朝鮮教育》 7卷5號

- 1926.2 <謂ゆる檀君傳説に就いて> 《文教の朝鮮》 6  
1926.6 <本大學の豫科に就て> 《文教の朝鮮》 10  
1927.8 <第一回汎太平洋會議要領> 《文教の朝鮮》 24

**【참고2】 戰前期 나카무라 히데타카의 역사 교육 관련 논고**

- 1930.9 <古蹟は如何に保存せらるべきか> 《朝鮮》 184 (朝鮮總督府)  
1930.10 <文祿・慶長の役と朝鮮の政情> 《研究評論 歴史教育》 5卷8號  
1932.9 <新刊《朝鮮史》に就いて> 《朝鮮》 208  
1935.8 《朝鮮史》 (<歴史教育講座> 第二部資料篇) (四海書房, 東京)  
1937.4 <李氏朝鮮家系の成立> 《綠旗》 2卷4號  
1938.10 <時局に於ける朝鮮の歴史教育> 《歴史教育》 13卷7號  
1938.12 <武漢占領の重要性> 《文教の朝鮮》 160  
1938.12 <内鮮一體論> 《朝鮮の教育研究》 124  
1939.4 <朝鮮の國史教育と教科用圖書の變遷> / <過渡期に於ける國史科授業のために> /  
<《初等國史》と《小學國史》との相異について> 《教科書編輯彙報》 3 (朝鮮總  
督府)  
1939.5 <日本世界主義> 《朝鮮の教育研究》 129  
1939.7 <朝鮮史論> 《アジア問題講座》 7 [民族・歴史篇(一)] (創元社, 東京) 321~357  
1939.9 <興亞教育と國史> 《教科書編輯彙報》 4  
1939.11 <皇國臣民教育と國史> 《綠旗》 4卷11號  
1939.12 <國史教育躍進のために- 皇室中心の國史について -> 《朝鮮の教育研究》 136  
1939.12 <任那の古都《高靈》> 《觀光朝鮮》 2卷1號  
1940.3 <新刊《初等國史》の編纂趣旨と取扱> / <新教科書による指導のために> 《教科書  
編輯彙報》 5  
1940.4 <《朝鮮教育》の創刊に寄す> 《朝鮮教育》 1卷1號 (京城女子師範學校・朝鮮教育  
研究會)  
1940.6 《東亞新秩序の建設と古代大陸經營の先蹤》 (朝鮮總督府, 京城)  
1940.7 <國史の體系はいかにあるべきか> / <教材の檢討と辭典の利用- 富山房《國史辭典》  
を薦む-> / <國史教授法研究のために> 《教科書編輯彙報》 6



- 1940.8 <百濟文化と内鮮關係> 《ラヂオ講演・講座》 15 (朝鮮放送協會)
- 1940.9 <朝鮮に於ける國史教育> 《朝鮮》 304
- 1940.11 <扶餘神宮の由來> 《觀光朝鮮》 2卷6號
- 1941.2 <孝德天皇改新の大政> 《綠旗》 6卷2號
- 1941.3 <國民學校國民科敎則案について(上)> 《文教の朝鮮》 186
- 1941.3 <初等國史の教師用を> 《綠旗》 6卷3號
- 1941.4 <齊明天皇國威宣揚の聖業> 《綠旗》 6卷4號
- 1941.4 <新初等教育の展開に際して> 《國民教育》 153
- 1941.5 <國民學校國民科敎則案について(三)> 《文教の朝鮮》 189
- 1941.6 <國民學校國民科敎則案について(四)> 《文教の朝鮮》 190
- 1941.10 <朝鮮史> 《師範大學講座 歷史教育》 12 (建文館, 東京) 1~61
- 1942.1 <元寇の國難と日本婦道の確立> 《綠旗》 7卷1號
- 1942.5 <大東亞建設と朝鮮教育> 《國民學校》 11 (朝鮮公民教育會)
- 1944.10 <國史と青年> 《興亞文化》 9卷10號
- 1944.10 <やまとをみなの力 - サイパン全員戦死に元寇を憶ふ - > 《新女性》 3卷9・10合號

### 【참고3】 조선사학 전공 졸업논문 제목

- 第1回(1929년 3월) : <王氏高麗初期に於ける對契丹關係>(西健介) / <朝鮮に於ける基督教の傳來に就いて>(山口正之) / <弘安の役後に於ける日本と高麗との關係について>(佐久間教洞) / <樂浪帶方之文化及社會生活狀態>(金昌鈞) / <新羅王朝の衰亡について>(申奭鎬)
- 第2回(1930년 3월) : <朱子學の傳來とその影響に就いて>(尹瑤均) / <高麗朝に於ける地理識緯の思想の政治上に及ぼせる影響>(成樂緒)
- 第3回(1931년 3월) : <新羅建國>(伊藤勝嘉) / <高麗初期に於ける高麗契丹關係>(梁柱華) / <毛文龍と朝鮮との關係について>(田川孝三) / <東洋史上に於ける凶奴民族の興亡盛衰について>(嚴武鉉) / <三國末に於ける新羅の統一運動に就いて>(江見一二)
- 第4回(1932년 3월) : <壬辰丁酉後に於ける對馬の國交恢復運動に就いて>(犬飼俊三) / <元代に於ける高麗王位繼承問題>(松尾元治) / <肅宗王代の清韓國境の

査定に就いて>(森田芳夫) / <高句麗の滅亡を論じて其の遺民の去就に及ぶ>(李繼甲) / <威化島回軍について>(李周衡) / <經濟上より見たる朋黨の原因>(笠岡幹吾)

- 第5回(1933년 3월) : 없음
- 第6回(1934년 3월) : <備邊司の設置に就きて>(重吉萬次) / (\* <清太宗時代に於ける朝鮮との關係>〔金聲均・東洋史〕)
- 第7回(1935년 3월) : <書院の起源>(柳洪烈)
- 第8回(1936년 3월) : <高麗時代の奴婢に就いて>(龜田敬二) / <朝鮮初期に於ける驛站の研究>(平間武弐)
- 第9回(1937년 3월) : <鮮初の兵制に就いて>(原田正平) / <朝鮮世祖朝に於ける北方問題の研究>(李仁榮)
- 第10回(1938년 3월) : <大同法の研究 -その成立を中心にして->(盧聖錫)
- 第11回(1939년 3월) : 없음
- 第12回(1940년 3월) : <李朝初期の土地制度一斑>(朴時亨・選科) / <李朝初期に於ける兵制の研究>(金錫亨)
- 第13回(1941년 3월) : <高麗高宗朝に於ける江華遷都の一考察 -崔氏を中心として->(金濬鎭<金光濬鎭>)
- 第14回(1941년 12월) : <李時愛の亂に就いて>(金相五<金川相五>) / <均役法ニツイテ>(廉衡淳<梅原毅一>)
- 第15回(1942년 9월) : 없음
- 第16回(1943년 9월) : 없음
- 第17回(1944년 9월) : 미상
- 第18回(1945년 3월) : 미상

### ◎ 졸업 직후의 진로

- 第1回 : 西健介(元山中→龍山中) / 山口正之(平壤高女→京城中) / 佐久間教洞(晋州高普→大邱師範) / 金昌鈞(朝鮮總督府學務局編輯課) / 申奭鎬(朝鮮史編修會修史官補)
- 第2回 : 尹瑢均(朝鮮史編修會 囑託) / 成樂緒(中央佛教專→梨花女專)
- 第3回 : 梁柱華(養正高普) / 田川孝三(法文學部助手→朝鮮史編修會囑託) / 江見一二(平壤

高女→元山商)

- 第4回 : 犬飼俊三(京城女子高普→平壤高女) / 松尾元治(滿蒙文化事業部助手) / 森田芳夫(綠旗連盟) / 李繼甲(裡里農林)
- 第6回 : 金聲均(朝鮮總督府警務局 圖書課) / 重吉萬次(李王職史料編纂所)
- 第7回 : 柳洪烈(法文學部助手→東星商)
- 第8回 : 龜田敬二(李王職史料編纂所→羅南女子高普→仁川中) / 平間武式(京城第一高普→京畿中)
- 第9回 : 李仁榮(大邱府史編纂委員) / 原田正平(光州高普→城東中)
- 第12回 : 金錫亨(養正中) / 朴時亨(朝鮮文化學院→敎新學校)
- 第13回 : 金濬鎭(清州商)

### ◎ 조선인 학생의 출신교 및 그후 등

- 第1回 : 金昌鈞(平壤高普)忠南大教授  
申奭鎬(專檢合格)國史館長, 國史編纂委員會委員長, 高麗大·成均館大·嶺南大 등  
教授 역임
- 第2回 : 尹瑢均(京城第一高普) / 成樂緒(京城第一高普) 制憲議員·忠南大總長
- 第3回 : 梁柱華(京城第一高普) / 嚴武鉉(東萊高普)
- 第4回 : 李繼甲(京城第一高普) / 李周衡(徽文高普)
- 第6回 : 金聲均(京城第一高普) 國史編纂委員長 慶熙大教授
- 第7回 : 柳洪烈(京城第一高普) 서울大教授
- 第12回 : 金錫亨(大邱高普) 金日成綜合大教授
- 第13回 : 金濬鎭(平壤高普)
- 第14回 : 金相五(光州高普) 全北大教授 / 廉衡淳(京城第二高普)

## [비평문]

정진성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역사교과서 편찬과 ‘국사/조선사’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이 글은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이 서로 긴밀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상호 논지를 분명하게 이끌고 있다. 조선사 편찬, 역사교과서의 편찬, 그리고 단군/기자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내용은 각각 조직, 인물 및 史觀이라는 또 다른 세 가지의 축에 의해 엮여져 있다.

조선사 편찬에 관하여, 저자는 구관조사로부터 조선사편찬위원회, 조선사편수회 등으로 이르는 과정 뿐만 아니라 청구학회, 진단학회, 경성제대 사학과 등의 조직의 계보를 치밀하게 조사했으며, 조선사 편찬에 참여한 인물이 교과서 편찬에도 참여하여 역사연구 및 편찬과 교과서 편찬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저자가 조선반도사 편찬으로부터 조선사편수회로 이르는 일련의 제도화 과정을 일선동조론의 역사인식의 반영, 관주도의 어용 성격, 일본의 한국통치 하의 근대에 단단히 속박된 것 등으로 본 점이다. 또한 저자는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조선사교육이 크게 후퇴되었다고 판단했으며, 그것을 내선일체사관과 국체본의에 근거한 황도의식, 그리고 교토학파의 ‘근대의 초극’의 세계사 구상의 귀결이라고 보았다.

저자는 이렇게 역사서술의 흐름을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시켜 판단하면서도, 다른 한편 또 다른 흐름을 ‘正史’에 기초한 실증사관의 확립과정으로 보고 있다. 실증사관과 역사에 투영되는 정치적 압력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이 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실증사관’이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도 연결된다. 이른바 실증사관의 엄밀한 방법론에 입각했다는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나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저자가 본문의 말미에서 참고로 제시하고 있는 일본 통치기의 조선사학 계통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는 궁극적으로 천황 중심의 일본의 국체를 강조하기 위한 역사와 도덕의 정립에 봉사한 것을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학자 자신에게 있어서 정치적 영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위 개념도에 있는 구

메 구니타케(久米邦武)가 1892년 초 국체론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 해직 당했던 사실을 떠올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실증적’ 역사연구가 정치적 이념과 사관에 따라 얼마나 입지가 달라지는가는, 최근 한국에서 과거사 정리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설치된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선사편수회에 관련되는 조선인들을 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정사를 사용한 편년 사료의 원칙론이란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역사서술과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자료를 선택하고 버렸는가를 큰 흐름에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저자가 다루고 있는 오다 등의 조선사 편수와 교과서 편찬은, 19세기말 20세기초 한국 정부나 지식인들에 의해 편찬된 주체적 역사서술(중국 역사로부터 탈피하고 일본을 문명국가의 준거로 삼으면서도 조선의 일본에 대한 과거의 문화적 우월성을 주장하는)과 교과서(예컨대 학부의 조선역사(1895), 현재의 동국역사(1899) 등)의 통사체계를 부정·말살하는데 집중해 왔으며, 결국 조선을 일본제국의 통사 체계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비켜갈 수 없을 것이다.

실증적 연구란 무엇인가에 대해 저자는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가? 정확한 사실이란 무엇인가? 나카무라의 말을 빌어, “엄밀히 전문 학술적 견지에서 검토된‘ 것이 정확한 사실인가? 또는 논문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正史’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가? 문서에 기록된 것만이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은 이미 아날학파와 케임브리지 가족사 연구 그룹 등을 비롯한 역사연구에서 정립되어 왔다. 그림이나, 무덤의 형태, 주택구조, 일기, 교구의 탄생과 장례의 기록, 구술 등등,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사고를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이 역사연구를 풍부하게 하고 있다. 때로는 문서 자체가 실제의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근대의 여러 사실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편협한 실증사관이 보다 중요한 역사적 실상을 놓치고, 그 배경에 놓여있는 역사적 가치와 정치적 이념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위에, 역사서술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증사관의 문제는 조선사편수와 교과서 편찬에서 저자가 예로 들고 있는 단군과 기자의 문제에서 두드러진다. 저자는 정만조나 이능화, 혹은 최남선과 같은 조선인

들이 ‘정사’에 나와 있지 않은 단군 조선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를 조선인의 민족주의적 동기와 관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응하는 일본인들의 자세는 저자가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바로서의 ‘정사에 입각한 원칙론’임은 물론이다. 여기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 정사와 야사, 과학과 신화, 객관과 억견,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그리고 조금 나아가자면 ‘편협한 민족주의’와 ‘관용적 제국주의(긍정적 의미에서의)’가 대비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단군조선과 기자 조선의 문제는 이와 같이 좁은 의미에서 대립적인 이항 대립으로 이해되어 온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한제국의 수립을 전후하여 한말의 조선인 역사가들은 단군은 대한제국으로 이어지는 정통의 흐름에서 왕조의 독자성, 즉 중국과 일본에 대한 종족적 대외 독립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그리고 기자는 일본에 대한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존재로 상정하여 왔다. 이 시기 민족정체성 형성의 맥락에서 단군이라는 종족적 요소와 기자로 표상되는 동양문명과 연계성이라는 이중구조는 조선의 식민지화에 따라 점차 단군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저자의 이해는 지나치게 일면적이고 피상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여러 회의를 통하여 교과서 편찬과 내용을 다루기로 약속된 논문에서, 정작 교과서 편찬과 내용보다, 인물의 구체적 연혁이나 사서, 사료편찬 등에 더욱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 [집필자 답변]

우선은 줄고의 기본적인 구성, 즉 ‘조선사편찬’ ‘역사교과서’ ‘단군/기자 문제’라는, 얼핏 보면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과제를 서로 관련시켜 논술한다는 기본적인 스타일을 읽어 준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비평 중에는 ‘실증이란 무엇인가’라는 역사철학 상의 커다란 명제에 관계되는 지적도 있는데, 지면의 제한도 있고 또 근거하고 있는 전문 분야의 차이에 기인하는 견해의 차이도 적지 않음에 비추어, 어디까지나 줄고의 기술 내용에 관계 되는 지적에 한정하여, 특히 오해·오독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해서만 반론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① : ‘조선사편수회의 제도화 과정을 일선동조론의 역사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의 부분에 관해서는 줄고의 설명 부족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선사편수회 성립 이전의 ‘조선반도사’ 편찬에 관한 이야기이다. 필자는, 특히 초기의 조선사편수회의 편수관들이, 《日本書紀》에 상징되는 것과 같은 단순한 ‘同祖論’에 입각해 있지 않은 것에 주목한 것이며 거기에 조선사편수회의 《朝鮮史》 제1편 제1권이 한·중·일의 正史에서의 ‘紀年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 준 의미를 찾아내려 한 것이다.

② : ①과 관련하여, 필자는 전통적인 ‘正史’라는 역사 기술의 스타일이 ‘실증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는 입장은 아니다. 평자가 ‘문서에 기록된 것만이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은 이미 아날학파와 케임브리지 가족사 연구 그룹 등을 비롯한 역사연구에서 정립되어 왔다’고 지적한 것에 異論은 없다. 줄고가 강조한 것은 ‘正史’ 내용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전통적인 사료 조작과 서술 수법의 문제이다. ‘正史’라는 것은 단순히 ‘올바른 역사’ ‘정확한 史實’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前왕조를 이은 新왕조에 의한 이른바 ‘정통성의 계승’에 관한 자기 인식이며, 또 대외적인 자세이다. 이것이 근대에 이르러서도 강하게 의식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 본 논문의 골자이다.

③ : 비평문의 마지막에 ‘교과서 편찬과 내용을 다루도록 약속된 논문에서 정작 교과서 편찬과 내용보다 인물의 구체적 연혁이나 사서, 사료편찬 등에 더욱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줄고의 서술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와 같은 ‘약속’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또 큰 틀로서 합의한 ‘교과서 편찬’ ‘제도’에 관한 논고로서, 교과서 편찬의 전제가 되는 관료 기구와 편찬의 제도

변천을 중심으로 다루고 또 필요에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비판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독자 제위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